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업장 녹이려면 나온 자리에 되놓아야

☞ 17면에서 계속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힘들어요. 과학적으로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이거다. 또 어디가 참 괴롭다거나 쓰라리다고 할 때에 네 마음을 내놔 봐라. 그럼 내가 아프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니까요.

'난 업보가 많아서 이래.' 이러면 업보가 많은 것이고 '난 업보고 뭐고 없다, 내가 없는데 뭐가 있으랴, 내가 공했는데 뭐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없는 거죠. 공하다 하는 이유는 고정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말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만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움죽거리는 것도 없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형이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동생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랬을 때,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또 형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있나, 나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그와 같이 고정된게 없다는 얘기죠. 고정된게 없이 찰나찰나 바뀌면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냥. 누가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자동이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스럽게 아버지 노릇하고 자유스럽게 남편노릇 하고, 또 자유스럽게 아들노릇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이해가 선뜻 선뜻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 이렇게 되죠.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듬으로 한데 합쳐서 더불어 함이 없이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함이 없이 사는데 업보가 거기 붙을 리가 없죠. 함이 없이 사니 시자일 뿐인데, 공한 모습일 뿐인데 거기에 업보가 붙을 자리가 없고 업력이 주둔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의법을 가르치시고 무의법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에 〈법화경〉을 설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말씀해 놓으신 대로 일일이 따져서 말을 한다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는 어떻게 심어야 이렇게 해먹고, 어떤 거는 물을 줘야 하고, 어떤 거는 물을 안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천년 만년이 가도 나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하나 속에도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들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먹었어도 내가 먹었단 말 못한다, 내가 했어도 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함이 없이 했는데 내가 업보가 될 리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쉴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두뇌를 금강 석수봉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부처님 머리위에도 이렇게 봉이 돼 있죠. 그게 금강같은 석수봉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한다면 자동적이고 영원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니까 거기 입력된 데다가 다시 입력하면 모든 게 소멸된다 이 소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앞서의 입력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거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그 놈한테다 새로운 걸 입력시켜 그 근거를 말살시켰으니까 그게 소멸되죠. 하나하나 소멸하다 보면 전체가 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스러워 진다, 점점 점차적으로 자유스러워진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그릇도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각기 그릇이 다르고 차원이 틀려서 얼른 그것을 납득하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들었는데 납득을 못하고 중간쯤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혀 모르고 가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게 업보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날까지 수 억겁을 살아오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살던 습이 있습니다. 그 쌓이고 쌓인 습이 어떻게 금방 다 없어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녹아지려면 끊임없이 나온 자리에다가 되놓는 방법 뿐이죠.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에 살 때 당나귀를 어떻게 때리면서 부렸는지 죽어서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린 주인은 부인이 돼가지고 항시 그게 업보가 돼서 입력이 된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마냥 때리거든요. 부인이 도저히 못견뎌서 어느 스님이 지나가니까 스님 바지자락을 잡고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당나귀를 부릴 때 너무 때려서 그대신 맞는건데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도 살려달라고, 이젠 다시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니까, 그럼 돗자리를 돌돌 말아서 당신 때리기 쉬운 자리에다가 놓고 있으라고, 돗자리의 한올한올 수효대로 때린 게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일러줬죠. 그래서 시킨대로 하니까 한 사나흘 그걸로 때리더니, 자고 나서는 "내가 왜 당신을 때렸지?"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 에누리가 요만큼도 없다는 얘깁니다. 에누리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에누리가 없고 있고간에 그냥 소멸된다 이 소리죠. 소멸되는 공부는 이 공부밖엔 없어요. '나오는 데다가 되놓는 것!' 이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몸둥안에서 네 마음이 벗어나야 네 몸을 자유스럽게 다스리고 네 몸을 맘대로 굴릴 수 있느니라. 네 몸이 통이니 그 통안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가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정신계에서 보이지 않게 나오는 것을 정신계에서 대치해서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의리와 도의를 지키면서 말을 지혜롭게 해 나가면 그대로죠 뭐.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마음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계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지금 어느 학교에서도 물질계와 정신계를 한데 합쳐서 공부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그게 스스로 돼야지 억지로는 안돼요. 습이 다 녹고 업력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면 스스로 내가 나를 이익하게 생각하는 법이 없어져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붙들려서 맞아도 나는 그 사람 탓을 안했어요. '나를 부딪쳐서 단련시키느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죄없이 맞는 것은 빨리 낫는다고 하듯이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본인들이나 아는 거지, 제 3자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때는 신도님들한테 그러죠. "남편을 원망하지 마라, 당신도 전에 그랬잖어. 당신은 지금 당신이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당할 때는 알지만, 과거로부터 당하고 지금 현실에 온 것까지는 몰라. 당신도 남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 그러면 그것이 다 소멸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구요. 또 이루다 말로 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빨리 공부하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면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놓는 공부는 바로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이고 소멸시키는 실천인데. 우린 지금 이미 실천하고 가는 겁니다.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소멸시키는 실천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붙이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처럼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길이 없는 길도 알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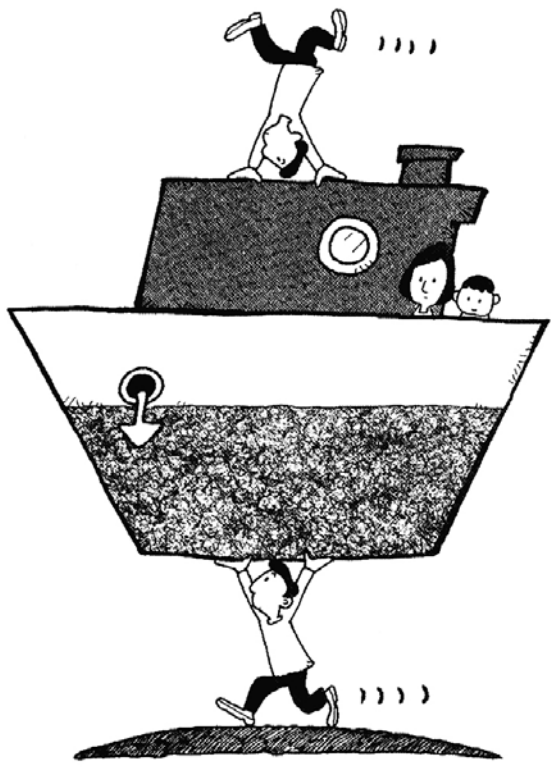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 만물이 여러분 마음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돼서 모든 걸 자유스럽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하지. 그래서 천차만별의 마음은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부처라는 이름 없는 것이 부처지 부처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자유스럽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치면 아프고 또는 좋고 나쁜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안되는 건 습 때문에 그렇죠. 아시는 걸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편안하게 생활속에서 행하시면서 내 몸이 하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몽땅 그놈한테다 맡겨놓고 사시면 얼마나 편해요. 이 세상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해도 돼요. 정말이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죠. 우리 살림살이가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형국인데 배는 네 모습이고 배 속에 있는 생명들은 네 중생이니라. 그런데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한테다 진짜로 믿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선장이 다 알아서 끌어다 줄 것을,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찾고는 온통 난리를 치니까 그 배는 뒤집힐 수 밖에 없다구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허공길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저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승의 이치를 다 알고 대치를 해 나갑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애를 여덟달 만에 낳았다든가 해서 다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몇 대 독자랍니다. 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공부를 잘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급하니까 오로지 그거 하나로만 지극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자기 앞에 급하게 떨어진 일만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는데요, 급하지 않아도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허허바다에 배 한쪽 타고 가는 것처럼 지금 살아나가는 게 그렇게 아슬아슬해요. 어느 때 차사고가 날지 어느 때 떨어질지 어느 때 또 잘못 될지 어느 때 식구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구요. 그냥 허허바다에 배 한쪽 띄어진 것과 같다구요.

그러니 이것 저것 다 생각할 때는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한 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불쌍하고 가엾은 게 아니에요. 벌레서부터 사람까지 모두 사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아마 화성에는 생명들이 없었나보다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어느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살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거에요. 아, 여기에서도 살다가, 또 이 지구에서도 사람이 살면서 부딪치고 부딪치구 수백년, 수만년 가다가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화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보살이 된다면 은비까비처럼 될 수도 있죠.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러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보살이 그렇게 행을 하거든요. 보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저 그림에만 나오고 텔레비젼에서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수중에 아무 것도 없어도, 아니 내 수중이 아니라 내 몸까지 없어요. 아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걸 버렸다고 했구나 했어요. 버릴 것도 없는 것을 말이예요. 여러분이 함이 없이 살고, 공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한 게 없다는 걸 알면 그 이치를 알게 될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서 고정됨이 없이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 돈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망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없는 걸 알아야만 자유스러워지죠.

항상 얘기하지만 남이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해줘도 깨우치는 것 하고, 죽는 것, 아픈 것, 똥누는 것, 잠자는 것, 먹는 것, 이 여섯 가지는 아무리 해도 대신 못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풍부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마음이 태평하게 버젓하게 그거를 대치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방방방 뛰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고 뭐고 그냥 다 버리면 될 것을 저렇게 붙들고 있으니 살기가 어렵고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살면 얼마나 살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죽는 걸 겁내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참 말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을 했어도 정작 할 말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요. 내가 해서 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서 점점 배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는대로 같이 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같이 해주고, 길면 긴 대로 같이 해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이 해줘라. 이것이 바로 모가 나지 않고 둥그니라." 이러셨죠. 때로는 각자 자기 몸을 살펴볼 때 말입니다. 기운이 없다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지요. 딴 사람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대로 빨리 대치를 해 나가야지, 대치할 생각은 안하고 어디가 어때서 그런가,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더 오히려 늦추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말이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일일이 따지면서 살았다면 벌써 죽었지 여지껏 살지 못했어요.

> 아는 사람 아는 대로
> 모르는 사람 모른 대로
> 같이 해 주고
> 길면 긴 대로
> 짧으면 짧은 대로
> 같이 해 주는게
> 모 나지 않고 둥근것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어디가 아프기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아파서 돼? 아프게 만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허허허허…. 아, 이 몸뚱이를 집을 삼고 사는 생명들이 전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죽고 나도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그렇게 대단스럽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요,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이따가 죽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요, 부모를 두고서 자식이 죽는다거나 또는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 부모가 죽는다거나 또는 부모가 너무 오래 살면서 자식들을 괴롭히거나 이런다면 그 부모된 마음에는 상당히 괴롭죠. 그래서 빨리 죽는 방법 그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남이 괴롭다 하면은 나는 백배 더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기보다는 실천은 자비에요.

그리고 사랑은 말이에요. 사랑을 안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해야 상대가 좋아하니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좋게 해놓고 자꾸 그러다보면 진짜로 실천이 되죠. 그럼 자비가 되는데 한 가정이 융합해서 좀 화목해서 살려면 거짓 아닌 거짓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짓이라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가정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참 당신 고생해.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데서 모든 응어리진 마음이 다 스르르 녹거든요. 그러면 그 녹은 마음이 애들한테도 화를 안내게 되죠. 또 부모 모시는 사람은 부모한테도 잘하게 되구요. 그런데 응어리진 마음에 좋게 풀지는 못할망정 더 마음 아프게 말 한마디 툭 해버리면요 그 양쪽이 다 불안하게 되고 말죠.

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지키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요, 고생을 많이 해도 말 한마디만 따뜻이 잘 해주면 저절로 스르르 녹아지는데 그 돈이 들으니 못해요, 왜 못해요 글세. 그런데도 그 마음이 그렇게도 돌려지지가 않고 나기 마음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음인가 보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도 다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또는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 꽂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자기가 하고 사는 겁니까. 업식과 업보가 뭉치고 뭉쳐서 화가 불끈 일어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말을 해대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업식의 장난이죠 모두.

이유 붙이면 마음공부 못해요
놓는 공부는 일심 정진으로
하나 하나 소멸시키는 실천

체없는 마음 · 수상행식 뛰어넘어서야
습녹고 업력 없어지면 내 이익 생각안해

협찬 한마음